# "코로나 걱정없이 만날 수 있는 날 왔으면"

르포 광주송정역·유스퀘어터미널 가보니

## 귀경객 북적…고향·가족 정 안고 다시 일상으로

## "오랜만에 집밥 좋아…건강하게 위기 극복하길"

추석 연휴동안 가족, 친지 등과 함께 고향에서 따뜻한 온정을 나눈 귀성객들이 22일 오후 광주송정역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기차에 오르자 남아있던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작년에도 못왔는데 2년 연속 안올 수는 없었어요. 가족 모두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고향에 왔다가 갑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걱정없이 가족들이 모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광주 유스퀘어 버스터미널과 광주송정역은 모처럼 고향의 가족을 만나 웃음꽃을 피운 뒤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는 귀경객들로 북적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 이상 가족을 만나지 못해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많았다. 고향의 반찬을 가득 챙겨 일상으로 돌아가는 들뜬 발걸음도 있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귀경객들도 '혹시나 고향에 피해를 줄까 염려된다'며 짧은 만남을 뒤로 한채 서둘러 삶의 터전으로 복귀했다.

이날 오후 3시 광주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막바지 귀경객들이 몰리면서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인천행 버스를 기다리던 김영준씨(42·남)는 "집이 멀리 있어 명절이 아니면 가족을 볼 수가 없다"며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해서 이번 추석에 집을 찾아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조부모를 보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는 박지원군(17·대전)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챙겨주셨다"면서 "코로나 핑계를 대고 집에서 쉬려고 했지만 부모님께 야단 맞았다. 내년에는 코로나 눈치 안보고 편하게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천안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강예솔씨(24·여)는 "직업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접촉해서 혹시나 가족들에게 전파할까 봐 1년만에 본가에 왔다"면서 "오랜만에 집밥을 먹어서 좋았고 챙겨주신 반찬으로 인해 당분간은 집 향기를 계속 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송정역은 대부분 상행선 예매가 완료되면서 터미널보다는 차분한 모습이었다.

이병춘씨(57·남·평택)는 "작년 추석엔 아들이 수험생인데다 코로나가 심해서 못왔다. 올해는 조금 괜찮아지기도 하고 2년 연속 안내려갈수 없어서 왔다"면서 "델타변이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백신을 2차까지 맞아서 그래도 안심하고 내려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행 KTX를 기다리던 정수정씨(32·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연세가 있어 한번이라도 더 얼굴을 봐야할 것 같아 고민끝에 잠시 왔다 간다"며 "코로나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 걱정없이 할아버지댁을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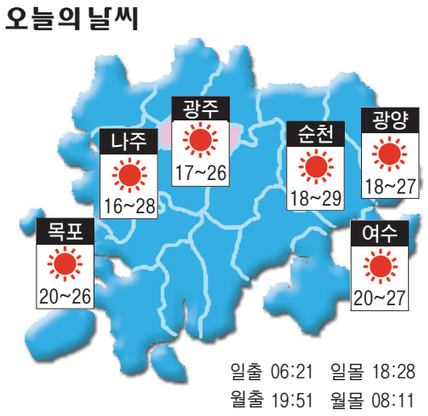
한편, 올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광주를 오고 간 귀성·귀경객은 설 대비 늘어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22일 낮 12시 기준 광주송정역, 광천터미널, 공항, 자가용 등을 이용한 인원은 272만4,21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귀성객은 137만4,196명, 귀경객은 135만18명이다.

이는 지난 설 연휴 기간 120만1,096명(귀성 66만2,639명·귀경 53만8,457명)보다 두 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추석의 274만9,518명(귀성 143만5,381명·귀경 131만4,137명)과 비교해서는 소폭 줄었다. /김민빈 기자

### 오늘의 날씨




일출 06:21 일몰 18:28
월출 19:51 월몰 08:11

| | | | |
|---|---|---|---|
| 장 성 | 16~26 | 흑산도 | 21~26 |
| 담 양 | 16~27 | 구 례 | 17~27 |
| 화 순 | 16~27 | 곡 성 | 15~27 |
| 영 광 | 17~26 | 완 도 | 19~27 |
| 함 평 | 17~27 | 강 진 | 17~27 |
| 무 안 | 17~26 | 장 흥 | 16~27 |
| 영 암 | 16~27 | 해 남 | 16~27 |
| 진 도 | 18~27 | 고 흥 | 16~27 |
| 신 안 | 19~26 | 보 성 | 15~27 |

| | | | |
|---|---|---|---|
| 목포 | 만조 03:38 15:53 | 여수 | 만조 10:21 22:33 |
| | 간조 08:44 20:58 | | 간조 04:05 16:15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조합원에 금품 건넨 조합장 실형

선거 직전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조합장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 이틀 전인 3월 11일 오후 조합원을 만나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건넸고 3월 12일 밤에도 조합원 2명을 찾아가 자신을 찍어달라며 바닥에 돈을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어서 비우호적인 이들에게 굳이 돈을 줄 이유가 없었고 3월 12일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0표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고 3월 12일 알리바이도 증명이 부실하고 선뜻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역 단위조합은 선거권자가 한정돼 있고 서로 관계가 연결된 경우가 많다"며 "다른 선거보다 금품선거 등 비리 가능성이 크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살포한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진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비난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환준 기자

## 추석 연휴 5대 범죄·교통사고 감소

### 광주·전남경찰, 자치경찰위와 특별치안활동

올해 추석 명절 기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5대 범죄와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명절 치안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주민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강·절도와 생활 주변 불안감을 조성하는 길거리 폭력 등에 집중대응 한 결과, 광주지역 5대 범죄와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9%, 9.3% 줄었다.

교통사고는 일평균 11.3건으로 1.7%, 부상자는 일평균 13.8명으로 9.0% 감소했다.

다만, 가정폭력 신고는 일평균 6.3% 증가했다.

전남에서는 전년 대비 범죄신고가 3.3% 감소하는 등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7% 감소했고, 교통사고는 사고다발지역 중심으로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해 31.6%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이후에도 범죄예방 및 교통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 생활고·가정불화 때문에…한가위 비극

### 고향집 찾은 일가족 등 극단적 선택 잇따라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 전남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랐다.

2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7분께 순천시 해룡면 야산 중턱에서 김모씨(48)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있었으나 산 아래쪽에서 김씨의 승용차와 신분증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낮 12시 26분께 순천시 해룡면 야산에서 보름가량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일대를 수색 중이었다. 해당 차량은 문이 열려 있고 열쇠도 꽂혀 있었다.

경찰은 지난 6월 17일 무안에서 가출 신고가 접수된 김씨의 승용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의용소방대원 등 80여 명을 동원해 이틀째 수색하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농자재 배달 사업을 했으나 채무가 늘어 파산 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6월 13일 오후 가족에게 떠나고 싶다는 말을 남긴 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에는 장성군 한 단독주택에서 A씨(74·여)와 아들 B씨(55)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며느리는 집 앞에 주차한 승용차 뒷좌석에서 숨져 있었다. 아들 B씨는 집 안의 다른 공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B씨 부부는 대전에 거주 중이며 연휴 첫날인 18일 오전 4시 40분께 어머니 홀로 거주하는 장성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또 다른 가족이 다른 지역에서 고향 집을 찾았다가 이들 3명이 집 안팎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고, 일가족 모두 타살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가정불화에 의한 일가족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